

### 이렇게 들었다

### 비리 근절 "중신이 뇌물 챙기면 나라 무너져"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사회질서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구성원 각자의 양심과 윤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농수축협들의 비리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 또 한번 충격을 주었다. 총 861명이 적발돼 272명이 구속된 이번 비리사건은 사상최대 규모라고 한다. 비리내용 또한 대출관련, 경제사업관련, 횡령, 선거, 인사관련 등 개인에서 조직전체까지 광범위하다. 권력앞에 줄서고, 아첨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사회, 금품 청탁과 뇌물을 건내는 검은 거래가 없는 건강한 사회는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이번 사건을 뼈아픈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대실차니건자소설경>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 어느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탄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담게 재물을 구하지 법담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야할경>  
■ 얼마 안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증인으로 불러 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

자를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偽證)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승타니피타>  
■ "이 온갖 중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심구의업(身口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염경>  
■ "너는 눈을 바르게 하며, 너는 귀를 바르게 하며, 너는 코를 바르게 하며, 너는 입을 바르게 하며, 너는 몸을 바르게 하며, 너는 마음을 바르게 하라." <정행경>  
■ 사견(邪見)을 버리고 바른 도(道)를 따라서 갖가지 점술(占術)을 버리며, 악한 계(戒)에 매이는 견해를 떠나 바른 견해를 닦아서,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화염경>  
■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늘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

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안 안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열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 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가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일이다. <법구경>  
■ 차라리 스스로 배를 깨고 가슴을 꿰지언정, 망령된 마음을 따라 악을 짓지 말아야 한다. 역사(力士)만을 힘아 믿고 이르지 마라. 스스로 마음을 바로 하면 역사보다도 더한 힘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다름이 후로 부수검(無數劫)에 걸쳐, 마음을 수순(隨順)하지 않고 애써 정진하지 스스로 부처님이 되셨느니라. <열반경>  
■ 내게는 업보(業報)가 오지 않으리라 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방을 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 된다. <법구경>

### 참을 수 없는 불교왜곡

### 제언



현해  
월정사 주지

격동의 구한말과 시련의 일제하에서 가장 치열하고 지조있게 살다간 선각자들이 불자들이었다. 한마디로 한민족 정신을 지켜온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였던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청에서 홍보용 개간지(동트는 강원)지에 기독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불교는 무자비해왔다는 글이 실린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필자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므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를 '미신, 우상, 무지몽매'로 표현, 모독하더니 이런 편견을 갖고 새싹들을 교육하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사실 개화의 과정에서 유대치 등 불교인들이 먼저 앞장을 섰지 기독교인도 전무했다. 교계에서는 일본불교에 대항하기 위해 조계사를 건립하는 등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반면 일부 기독교인은 조선총독부와 타협하는등 선교를 우선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주권을 회복하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말인가. <동트는 강원>을 발행하고 있는 강원도와 글을 쓴 저자가 뒤늦게 사과문을 보내 왔지만 그것만으로 용납할 수 없다. 주권회복을 위해 묵숨처럼 투쟁하다 장렬히 숨져간 선조들을 묵보이고 알

막한 글솜씨로 기독교가 마치 나라를 개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불교를 미신과 우상 그리고 무지몽매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불교에 대한 도전을 모독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교계의 대처도 한심스럽다. 사건의 진상을 모른채 '그럴 수도 있다' '사과 했으면 됐지' 라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 뿐이다. 이러한 방식이 또다러 불교왜곡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선 교계 언론들이 여론을 모으고 여기에 모든 불자들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해스님, 용성스님 등이 암묵의 하늘 아래에서 끝까지 저항의 깃발을 높이 치켜 세우며 나라를 지켰다. 일본불교계의 한국의 불교를 통합하여 정신적 침략을 시도하는데 대항하기 위하여 31본산 주지스님들은 연합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일본에 없는 조계종을 창립하고 종정에 한암스님을 추대하는 등 민족의 절개와 지조를 곳곳이 지키기 바로 한국불교였다. 그들 우리 사부대중은 명심해야 하고 국민들을 이해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계의 사료정리와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겠다.

## 열린마당

### '문화재청'에 바란다

#### "문화재사범 처벌 강화"

양산 <조계종 문화부장>

그동안 정부는 인원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들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질책을 피해갔다. 문화재관리국이 청으로 승격됨은 인사와 재정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 "규제일변도 정책 탈피"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는 등 겉으로는 호들갑을 떨면서 내세워 있는 문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한국 문화계에 내려진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문화재청에 거는 기대 또한 막중하므로 그 이음에 걸맞은 내실로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사찰정보 합리적 보존"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문화 유산을 관리 보존 연구하는 조직이 지금까지 국(局)의 규모로 머물렀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유형문화재와 인명하기 쉬운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리 없었다.



#### "지방문화원등과 협조"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축소와 '화두'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것은 뜻밖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문화재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찬성할 일이다.



#### "문화재보호법 강화"

최재 <문화재보호법 강화 문화재 사범의 처벌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한국의 각종 문화유산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한국민의 고유한 전통과 지혜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80%에 이르는 문화재가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도난 문화재의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외로 반출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처벌 조항을 강화해 문화재 도난을 줄여야 한다.

#### "문화재청의 기구 3국으로 확대"

최재 <문화재청의 기구 3국으로 확대되었다 하여 축소된 다른 부처의 행정 인력을 영입하는 전근대적 방법은 배제되어야 하고, 전문학제적 영입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재 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연구소의 독립과 함께 독자 운영에 따른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 "문화재청의 기구 3국으로 확대"

최재 <문화재청의 기구 3국으로 확대되었다 하여 축소된 다른 부처의 행정 인력을 영입하는 전근대적 방법은 배제되어야 하고, 전문학제적 영입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재 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연구소의 독립과 함께 독자 운영에 따른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 "문화재청의 기구 3국으로 확대"

최재 <문화재청의 기구 3국으로 확대되었다 하여 축소된 다른 부처의 행정 인력을 영입하는 전근대적 방법은 배제되어야 하고, 전문학제적 영입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재 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연구소의 독립과 함께 독자 운영에 따른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지나해 말 군순단에서 새로 제작해 펴낸 <신편 국군법요집>이 6개월을 못넘기고 또다시 개정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군순단 총회에서 <신편 국군법요집>의 개정 결의한 것과 관련 "이는 군법당에서 마무를 걸어내고 다시 교회사 장의자를 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군법사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군법사들은 △법요집 결정 과정이 전 체 군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 고 △법요집이 집정장 초심자에게 부담스러우며 △'장로 성탄절'에 '배' 등의 전통 불교용어의 복원이 거부 △'국군법당 운영규'를 삽입한 점 △'교설편'의 부족 등 포교·교육용 불서문 부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좀더 쉬운 <국군 법요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개정을 반대하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당시 결정에 참가했던 책임직관들은 "5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완성된 <신편 국군법요집>은 비전

통적 요소를 전통적 요소로, 비불교적 요소를 불교적 요소로 전환시켰다"면서 "지난 30년간 사용해 온 기존의 개신교식 <구 법요집>으로의 회귀는 예전처럼 불공과 보시를 모르는 신심없는 청년불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법회관에 따라 '불공과 축원', '정법과 설법', '공양과 인사' 편으로 구성된 <신편 국군법요집>의 법회예를 불행해야 한다는 전통 옹호론과 신세대 장병과 현대인들에게 맞는 현대적인 국군법요집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은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편 국군법요집>이 제작·배포되자마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란 인연 대표적 징계비리는 지적이다. 법요집 결정에 군법사의 통일된 의지를 모으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지적사항이다. 밀레니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곳이 여 기뿐이 아닐 것이다. (jgkim@buddhapia.com)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 1부 기자>

### '국군법요집' 개정 논란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 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선선의 주식(主身)이 사계절에 푸름(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아예 말로 다할 수 없으리.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우면서 희생·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형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국(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진 어머니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선인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러(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은 토종자 소나무농장주자 이번엔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장(強壯)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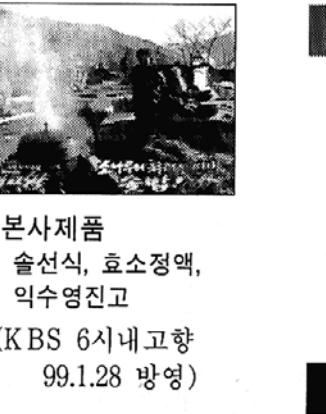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새방·솔마디·솔화기루·솔진·솔근배피·솔목피·솔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살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의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효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국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선인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효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양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효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점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영양 강장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  
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